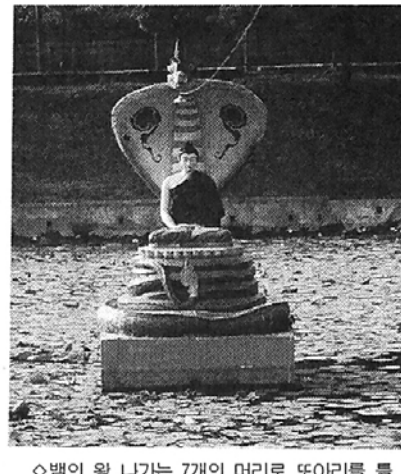




▷보리수 아래서 무상정등정각을 이룬 부처님은 수행자 시절 함께 고행했던 다섯 비구를 찾아 녹야원에서 첫 설법을 했다.



▷땀의 왕 나가는 7개의 머리로 또이리를 틀어 성도 후 선전에 든 부처님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 (대보리사 언뜻에 있다.)

“마침내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전설상의 佛陀 (3)

그때 애정과, 죄악과, 죽음의 고인 '마라'가 신타르타를 공격했다. 마라의 공격은 긴박 내내 계속되었다. 공격을 시작하기 전 마라는 금속에서, 자신의 왕관이 떨어지고 궁궐의 꽃은 시들고 연꽃은 말라버리고, 악기 줄이 끊어지고 자신의 머리 위로 재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다. 자기 칼이 칼집에서 뽑히지 않는 것을 보았다. 화가 난 마라는 악마들, 호랑이들, 사자들, 표범들, 거인들, 뱀들로 구성된 자신의 군대를 총동원했다. 그중에는 아자나무처럼 키가 큰 놈

자신의 딸들로 하여금 그를 유혹하게 했다. 그를 둘러싼 여인들은 음악을 연주하며 교태를 부렸다. 신타르타는 여인들에게 그들의 본질이 환영(幻影)임을 일깨웠다. 손가락으로 여인들을 가리키자, 곧 추한 노파로 변해버렸다. 혼란에 빠진 마라의 군대는 사분오열되어 각지로 흩어졌다. 홀로 나무아래 정좌(定坐)한 신타르타는 번뇌의 불꽃과 생사의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다. 모든 이치가 그 앞에 밝게 드러났다. 그는 자신과 모든 중

마라 불화살과 여인들의 유혹을 이긴 태자는 번뇌 불꽃과 생사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주를 한눈에 보고 인과 사슬을 살폈다

도 있었고 난장이처럼 작은 놈도 있었다. 맨앞에는 산만한 크기에 500개의 머리와 불을 뿜는 500개의 혀바닥 그리고 각각의 손에 다른 무기를 든 팔이 천개나 되는 거대한 크기가 신타르타를 향해 달려들었다. 마라의 군대는 신타르타에게 불화살을 퍼부었다. 그러나 불화살은 신타르타의 사람의 힘에 의해 꽃잎으로 바뀌어 떨어져 내렸다. 불화살은 화대(花臺)가 되어 신타르타의 주변에 쌓였다. 패배당한 마라는

생의 수많은 전생을 날같이 보았다. 우주 구성구조의 수없이 많은 세계를 한눈에 전관(全觀)했다. 그뒤 모든 인과와 사슬을 살펴보았다. 이윽고 새벽녘에 이르러 사성제(四聖諦)와 삼법인(三法因)을 직관하였다. 이제 그는 태자 신타르타에서 부처님이 된 것이다. 전상의 신들과 미래불들이 그를 칭송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나는 진리를 찾아 수많은 생의 수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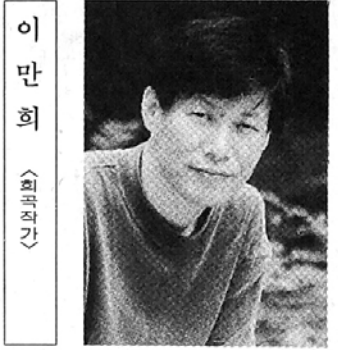
녹야원으로 간 부처님은 다섯 수행자에게 첫 설법을 했다 중도 실천방법인 팔정도와 망집 제거하는 사성제를 설한 그날 이후 지상에는 여섯 성자가 거주 불·법·승 삼보가 이루어졌다.

바퀴를 전전했다. 그토록 자꾸 태어나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었다. 마침내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사의 윤회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칼 프리드리히 쾨페 Karl Friedrich Kopper에 의하면) 여기서 네팔과 티베트의 경전이 끝나면서 전설의 가장 오래된 형태가 끝이 난다. 부처님은 성수(聖樹)아래 7일간을 더 앉아 있었다. 신들은 그에게 음식과 옷을 바치고 향을 피웠으며 꽃을 던지면서 축하했다. 비가 오자 뱀의 왕 '나가'가 자신의 7개의 머리로 동그렇게 되려를 틀어 불타의 머리 위에 지붕을 만들었다. 비가 그치지 나가는 뱀은 브라만으로 변해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을 놀라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와 추위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드리려고 한 것 뿐입니다." 나가는 부처님과 몇마디 짧은 말을 주고 받은 뒤에 부처님께 귀의했다. 이어 한 신이 다가와 나가의 뒤를 따라 재가불자로 귀의했다. 동서남북의 공간을 지배하는 네명의 왕이 다가와 부처님께 각각 석기(石器) 하나씩을 바쳤다. 부처님은 그들의 뜻을 존중하여 네개를 녹여 하나로 만들었다. 이후 40년간 부처님은 탁발할 때 그 바퀴를 사용하게 된다.

브라흐마신(梵天)이 수행자들을 이끌고 천상에서 내려와 부처님에게 중생들을 구제할 설법을 하도록 간청했다. 부처님은 마침내 이 간청을 받아들였다. 대지의 정령이 공기의 정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공기의 정령은 천상각지의 온갖 신들에게 이 기쁜소식을 전했다. 부처님은 베나레스시를 향해 걸어들었다. 서문으로 들어가서 탁발을 한뒤 녹야원(鹿野苑)으로 갔다. 그곳에서 지난날 고행을 포기할 때까지 함께 수행하던 다섯 수행자들과 재회하여 그들을 위해 최초의 설법(初轉法輪)을 했다. 그들에게 세속적인 쾌락의 삶과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의 삶이 양 극단을 떠나 중도의 삶을 걸어야 한다는 '중도(中道)'의 가르침과 중도의 구체적 실천방법인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명상'의 팔정도, 그리고 망집(妄執)의 제거를 통해 고통 극복하는 '사제(四諦)'의 가르침을 설했다. 그말을 듣고 깨달은 다섯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 경전에 전하기를 그날 이후 지상에는 여섯명의 성자가 거주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불(佛) 법(法) 승(僧) 삼보(三寶)가 이루어졌다.

편역 김홍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이만희 (소설작가) 겨울방학이 거의 끝나 갈 어느날이었다. 총무스님이 날 불렀다. "앞으로 사흘동안 원주스님 방에서 자도록 하거라." 잘 됐다 싶었다. 총무스님과 함께 잘 때면 무서워서 다리를 쭉 뻗지도 못할 정도였다. 게다가 원주스님은 무량사에 계신 어떤 스님들보다도 인간적이었고 그 방엔 떡과 과일 등 먹을 것도 많았다. 밤이 되어 이부자리를 펴드릴 양으로 총무스님 방에 갔다. 스님은 가부좌 상태로 면벽 중이었다. "이 저게 바로 참선이라는 거구나." 다음날에도 그 다음날에도 총무스님은 그 자세로 끔찍 할 줄을 몰랐다. 약속한 사흘이 지나자 총무스님이 나를 불렀다.

“힘들 때는 마음을 가라 앉혀라” 무량사의 눈내리던 밤 평생 잊을 수 없어

여에 있는 무량사였다. 어머니는 요사채 마당에서 기다리라고 하고는 총무스님 방으로 들어갔다. 잠시후 들어오라고 했다. 총무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계셨다. 무겁게 입을 떼었다. "만화야." "에." "겨울방학동안 우리 무량사에서 지내면 어떻겠어?" "에." "세상엔 공짜가 없잖아?" "..." "잠은 이 방에서 나하고 하냥 자면 될 것이고 밤 값으로는 대중스님을 시봉을 들도록 해라." 어머니는 날 힘겹 쳐다보고는 산을 내려가셨다. 어머니의 축 처진 뒷모습이 날 아프게 했다. 그날부터 나는 스님을 방에 군불을 지피고 수발을 들고 차 심부름도 했다. 무섭기만 했던 스님들도 시간이 점차 흐르자 온화한 얼굴로 바뀌어 갔다. 가끔씩 집 생각이 났다. 그때마다 큰법당 부처님께 빌었다. "우리 부모님을 안 울게 해주세요." 나중엔 산책하면서 찻물을 끓이면서도 비는 것이었다. 산중생활이 심심하기도 했지만 그리워져 물들어 갔다. 이런 나를 보고 스님들이 가끔씩 농을 건넸다. "저놈 저놈 영락없는 중팔자라고."



"방학이 며칠 안 남았지?" "에." "오늘부터 내 방에서 같이 자자." "에." 밤이 되었다. 밖에서는 눈보라가 쌓여 거렸다. 총무스님은 잠자리에 들면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그 날은 달랐다. "만화야. 그동안 느낀 게 뭐 있느냐?" "..." "부모님 생각에 힘들었어?" "에." "그래 그랬겠지. 앞으로 살아가노라면 힘든 일이 더 많을 것이다. 그뻐 차분하게 앉아서 벽을 쳐다보며 마음을 가라 앉혀." 삼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총무스님의 소근소근거리는 말이 내겐 저렇듯 울린다. 난 지금도 잠으로 말 많은 동네에 살고 있는 셈이다. 내가 하는 연극이 그렇듯 문이 그렇다. 사건도 많고 속상할 때도 많다. 그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말한다. "절에 있을 걸 사바세에게 괜시리 내려왔죠?" 난 씩씩 웃는다.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는 하더라도..." 난 아직도 무량사의 눈 내리던 밤을 잊지 못한다. 그 춥던 겨울방학은 내게 일생을 살아가며 배워야 할 가장 큰 가르침을 던져 준 귀한 시간이었다.

1996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불 교 학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 국 어 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학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포교사도 가능)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출가희망자
•반명함판 사진 5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6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 511-1080, 511-2026 · 2027 · 2028, 조계사원 삼보원: 732-9904, 경주제일서점: 772-2338
 부산영광도서: 816-9500, 대구 제일서점: 424-0801, 인천 대한서점: 762-7337
 삼북서점: 222-0258, 대전 문경서점: 252-8558, 수원 교학사: 251-3928
 마산 학문당: 46-2925, 전주 흥지사점: 88-5311, 청주 인선문고: 53-2360
 김해 오복당: 36-2105, 포항 학장서점: 46-2120, 강릉 강릉서점: 645-4373, 공주신광서점: 55-254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 · 2027 · 2028)

2. 학교연혁

- 1989. 7. 3 학교설립공고
-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 91. 3 전문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 93. 3 불교미술과·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38명 취득 예정
-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예정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